

한·이탈리아 에너지 전환과 공급망 협력 논의... 정상회담 후속조치

-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이탈리아 외교협력부 차관과 양자 회담
-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원전 등의 분야에서 양국 협력 확대 모색

우리나라와 이탈리아가 서울에서 열린 양국의 정상회담(2026. 1. 19.) 후속조치로 에너지 전환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면서 양국의 에너지 안보강화 및 관련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11일 오전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과 마리아 트리포디(Maria Tripodi) 이탈리아 외교협력부 차관이 면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지난 1월 19일에 열린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에너지 전환과 순환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면담은 정상회담을 통해 형성된 양국 간 협력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등에서 실질적인 정책 협력과 사업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첫 고위급 협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국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불안정한 국제사회의 여건을 고려하여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등 국제적인 협력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1986년 탈원전을 선언했던 이탈리아가 최근 원전 도입을 검토하게 된 배경 등의 정보를 공유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전원구성(믹스)을 통한 에너지 전환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망 유연성 확보 등에 대한 미래 협력 방향도 논의한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이번 면담은 양국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협력 방향을 실제 정책과 산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요한 만남”이라며, “양국이 가진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민관협력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 국제사회의 기후에너지 목표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한-이탈리아 외교협력부 차관 면담 계획(안).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	책임자	과 장	강부영 (044-201-6600)
		담당자	서기관	유재영 (044-201-6608)
		담당자	사무관	박정욱 (044-201-6609)
		담당자	주무관	이진범 (044-201-6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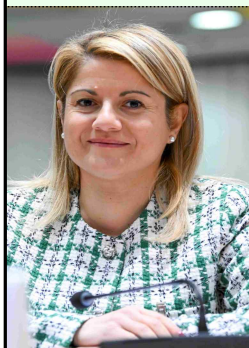


('26. 2. 2,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

□ 면담개요

- 배경 : 한-이탈리아 정상회담(1.19) 후속으로 이탈리아 외교협력부 차관 방한('26.2.10~12.)계기 차관님과 에너지 등 관련 회담 요청
- 일시/장소 : '26. 2. 11(수) 09:30~10:30 / 달개비 (서울 중구)
- 면담대상 : 이탈리아 외교협력부 마리아 트리포디 차관
 - 배석 : 알레산드라 스키타보(Alessandra Schiavo) 외교협력부 부국장, 에밀리아 가토(Emilia Gatto) 이탈리아 대사 등

마리아 트리포디 이탈리아 외교협력부 차관



직책	Undersecretary of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학력	• 로마 라 사피엔차 대학교 국제관계학 세부 전공(학사) • 이탈리아 국제기구협회 경제 안보 지정학 및 안보 전문스 마스터 학위(석사) • ('22~현재) 이탈리아 외교협력부 차관
주요 경력	• ('18~'22) 제18대 하원의원(칼라브리아 지역구) • '05년 전진이탈리아 청년부에 입당에 입당하여 청년 조직의 국가 책임자 및 유럽국민당(EPP) 청년부 부사무총장 등 역임

□ 예상 의제

- 에너지 전환(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청정에너지 생태계 구축)
- 원전 부문 협력
 - ※ 이탈리아는 30년이상 원전 정책 미추진, 최근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50년까지 전력믹스의 약 11%를 원전으로 구성하고 10년 이내 원전 가동 목표 확대 및 SMR 투자 촉진 검토중
- 순환 경제(핵심광물 및 배터리 재활용 등)